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구간 세분화를 위한 KT의 이용약관 신고

- 3만원대 최저구간(3.7만원, 4GB) 5G요금제 신설, 요금할인 적용 시 2만원대에 이용 가능
-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여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
 - * [기존] 2구간(5 · 10GB) → [개선] 5구간(4 · 7 · 10 · 14 · 21GB)
- 청년 혜택 강화(데이터 2배, 적용 연령 상향) 및 세분화된 온라인 요금제 8종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이하 'KT')가 1월 17일(수)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신사와 협의하여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저렴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가 다수 출시 되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 KT 5G 요금제 개편 추진 현황 >

구분	소량(~30GB)				중량(~100GB)				다량(~250GB)
데이터 (월정액)	공백	5GB (45,000원)	10GB (55,000원)	공백	30GB (61,000원)	50GB (63,000원)	70GB (65,000원)	90GB (67,000원)	110GB (69,000원)



◆ 3차 개편 : 3만원대 요금제 신설
(최저구간 하향) 및 소량구간 세분화

1차('22.7월) · 2차('23.3월) 요금개편

← 이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요금 구간 →

이에 더해, 여전히 5G 요금의 최저 수준이 4만원대 중후반으로 높고 월 사용량이 평균 이하인 소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23.11월)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KT에서 ①3만 7천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 ②청년 혜택 강화, ③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

신설 요금제는 1월 19일(금)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3만원대 최저구간 요금제 신설 및 소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

월정액 3만 7천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원(10GB)·5만 8천원(21GB) 요금제를 신설하며, 기존 4만 5천원(5GB→7GB)·5만 5천원(10GB→14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 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데이터 옵션(이월형)도 선택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구간 5G 요금 수준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낮아지며, 월 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무제한 제외)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다.

* 5G 가입자(무제한 제외)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8GB('23.9월 기준, 과기정통부)

특히, 최저 요금제(3.7만원, 4GB)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적용 시 2만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함으로써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천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천원~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6천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소량 이용자의 통신비 경감 효과 예시 >

기 존	데이터	5GB		10GB		30GB	
	월정액 (25% 할인 적용가격)	45,000원 (33,750원)		55,000원 (41,250원)		61,000원 (45,750원)	
월 4GB 이하 이용자 8천원 인하 효과 월 6~10GB 이하 이용자 5천원~1만원 인하 효과 월 11~21GB 이하 이용자 3~6천원 인하 효과							
개 선	데이터	(신설)4GB	(확대)5GB→7GB	(신설)10GB	(확대)10GB→14GB	(신설)21GB	30GB
	월정액 (25% 할인 적용가격)	37,000원 (27,750원)	45,000원 (33,750원)	50,000원 (37,500원)	55,000원 (41,250원)	58,000원 (43,500원)	61,000원 (45,750원)

< ② 청년 혜택 강화 >

이번에 개편되는 소량 구간 요금제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 만 34세 이하 청년에 데이터 2배 확대 제공 >

월정액 (25%할인 적용가격)	37,000원 (27,750원)	45,000원 (33,750원)	50,000원 (37,500원)	55,000원 (41,250원)	58,000원 (43,500원)
데이터 제공량	4GB+400Kbps	7GB+400Kbps	10GB+400Kbps	14GB+1Mbps	21GB+1Mbps
청년은 데이터 2배	8GB+400Kbps	14GB+400Kbps	20GB+400Kbps	28GB+1Mbps	42GB+1Mbps

< ③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

3만원으로 시작하여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 KT의 5G 온라인 요금제 신설(안) >

가격 (유사구간 일반요금제와 비교)	30,000원 (-)	32,000원 (36% 저렴)	34,000원 (38% 저렴)	36,000원 (38% 저렴)	38,000원 (-)	40,000원 (34% 저렴)	42,000원 (-)	44,000원 (-)
데이터*	5GB	10GB	15GB	20GB	25GB	30GB	35GB	40GB
청년은 2배	10GB	20GB	30GB	40GB	50GB	60GB	70GB	80GB

* 데이터 제공량은 LGU+ 온라인요금제(너겟)의 1.45~5배, SKT 온라인요금제의 1.25~2.5배 수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작년 중·다량 구간에 이어 올해 소량 구간도 개편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라며, “이용자의 상당수가 월 2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인 만큼,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시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위재승 (044-202-6655)

